

번호: OP-O-004					
제 목	노인의 기능상태 변화 정도와 관련 요인 : 한림 노년 연구 2003~2005 Functional status decline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mong older adults : Hallym Aging Study 2003~2005				
저 자 및 소 속	장숙량1), 최용준2), 김동현2) 1)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, 2)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Soong-Nang Jang1), Yong-Jun Choi2), Dong-Hyun Kim2) 1)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, 2)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Hallym University				
분 야	역 학 [소아/청소년/노인]	발 표 자	장숙량 일반회원	발 표 형 식	구 연
<p>배경 및 목적: 노인의 기능상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자기 돌봄으로 정의되는데, 기능제한으로 인한 장애는 사망을 가속시키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노인 패널의 종적 관찰을 통해 노인의 기능상태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, 기능상태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.</p> <p>방법: 연구 자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HAS(Hallym Aging Study) 자료이다.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,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여 총 1,825명에게 기저 조사를 수행하였다. 2차 조사는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동일 대상자를 재방문하여 설문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1,314명(72.0%)이다. 기능상태 평가 항목은 K-ADL 7문항(옷입기, 세수하기, 목욕, 식사, 이동, 화장실사용, 대소변조절)과 K-IADL 10문항(몸단장, 집안일, 식사준비, 빨래하기, 근거리의출, 교통수단이용, 물건사기, 금전관리, 전화사용, 약먹기)에 대해 완전 독립(1점), 부분 독립(2점), 완전 의존상태(3점)로 점수화하였다. 관련요인으로는 연령, 성별, 교육수준, 결혼상태,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이환력, 간이인지기능검사(K-MMSE), 1년간 낙상경험의 유무, 건강행태(흡연여부, 음주 여부, 운동 실천정도, 규칙적인 식사 여부), 사회참여(일주일간 공식 및 비공식 모임의 참여 횟수)정도를 측정하였다. ADL, IADL 총점 평균 및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결핍항목수에 대하여 paired t-test를 수행하였다. 기능상태가 저하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능상태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도출하였다.</p> <p>결과: 연구대상 노인 1,314명의 2년 전후 ADL 총점 차이는 0.02(±0.01)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, IADL은 0.30(±0.1)점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(p=0.008).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상태 저하를 나타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. 65~74세 연령에서는 34.5%, 75~84세에서는 35.5%, 85세 이상에서는 51.7%의 노인이 2년 후 ADL과 IADL 모두에서 기능상태 저하를 나타내었다.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, ADL 또는 IADL 중 하나 이상의 기능상태 저하는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(adjusted odds ratio[aOR] 무학 vs 7년이상= 1.3, 95% Confidence interval[CI]=1.0-2.1), 사회 참여를 안하는 경우 (aOR=1.6, 95%CI=1.2-2.0), 만성질환 이환개수가 많을 수록(aOR 5개이상 vs 없음=1.6, 95% CI=1.0-2.5), 사별, 별거,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(aOR=1.7, 95% CI=1.7-2.2), 현재까지 400개피이상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(aOR=1.5, 95% CI=1.1-2.1)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 <p>결론: 노인의 기능상태는 시간경과에 따라 저하되는데,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(IADL)이 일상생활수행능력(ADL)에 비해 명백하게 저하되었다. 노인의 기능상태 저하에는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배우자유무, 사회참여정도 등 사회심리적 요인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.</p>					